## 중부권 물폭탄

17일 오후 안양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서울 양평2동에서 수해 가구 주민들이 내놓은 못쓰게 된 물건들이 집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연합뉴스

# 강원도 전역 완전 쑥대밭 사망·실종 53명으로 늘어

### 주요도로 침수 서울시내 사실상 마비
### 장맛비 남하 경상도·전라도 초긴장

서울·경기·강원 등 한반도 중부를 강타한 '물 폭탄'으로 인해 수십명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수천 채의 가옥이 침수돼 이재민이 속출했으며, 수만 가구가 상수도와 전기의 단수·단전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

또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전면 또는 일부 통제가 17일에도 계속돼 교통·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원, 경기 등 중부권을 강타한 장마전선이 남하해 일단 중부권은 17일 오전 이후 위급한 상황을 벗어났다. 그러나 충남·북, 경북, 전북 등에 60~150㎜의 강우 예보와 함께 호우 특보가 내려져 여전히 비 피해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17일 오후 현재 강원 48명(사망 19명, 실종 29명), 경기 3명(사망 1명, 실종 2명), 충북·전북 각 실종 1명 등 총 5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장맛비 남부권 이동=중부지방을 휩쓴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영남과 호남 등 남부지방에도 18일까지 최고 250㎜(누계 기준)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부산 지역의 경우 17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8일 밤까지 80~150㎜(많은 곳 250㎜)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된 상황이다. 경북지방에서는 이날 새벽부터 장마전선이 다소 약화되면서 경북 북부지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가 호우주의보로 대체됐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이날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진안군과 무주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비 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장마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상습 장마피해지역을 점검하는 등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남도 재해대책본부는 여수시와 순천시, 고흥군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점검에 나서는 한편 범람이 예상되는 하천과 저수지 등에 비닐 막을 씌우고 주변 둑 모래 주머니를 추가로 쌓았다.

◇강원지역 피해 '눈덩이'=강원도 전역은 이번 폭우로 완전 초토화됐다. 이 지역에서만 4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주택 1천445채가 침수 또는 파손돼 13개 시·군 3천85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중 일부는 귀가했지만 아직까지 965가구 2천325명은 마을회관과 학교 등에 집단 수용돼있다.

상수도 시설도 피해를 입어 6만2천200여 명의 주민들이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며, 정전사태로 인해 3만 7천700여 가구 중 1만 7천100여 가구의 전기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통신시설 피해로 두절된 유무선 전화 9천700회선 중 2천800여 회선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집중폭우로 도로와 전기·통신이 모두 끊긴 고립지역도 속속 늘어 평창, 인제, 정선, 양양 등 4개 시·군 23개 마을로 집계됐다.

주요 국도와 지방도 곳곳이 사흘째 전면 통제되고, 채소 재배단지 상당 부분이 유실되면서 사상 최악의 채소 물류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상 마비된 서울=서울 시내 18개 구간의 주요 도로가 침수되면서 17일에도 서울은 사실상 마비됐다. 한강 수위가 높아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서부간선도로, 내부 순환로에 대한 통제가 계속됐다.

또한 폭우로 시내도로 곳곳의 지반이 내려앉거나 구멍이 뚫려있어 운전자들이 교통대란에 이어 사고 위험에 내몰린 처지가 됐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1천2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안양천 둑 유실로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긴 양평2동의 주민 1천75명은 인근 당산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으며, 대부분 물이 점차 빠지자 속속 집으로 돌아가 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씻는 등 애를 먹고 있다. 나머지 128명만은 아직도 대피소에 남아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기 및 대전·충청 지역 피해=경기지역에서도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백명이 집을 잃었다. 모두 3천452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겨 앞으로 피해액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17일 오전 현재 18개 도로가 통제되면서 서울지역을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찾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대전 및 충청지역에서도 농경지 침수, 교통통제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충북에서도 1명이 실종되고 논밭 300여ha가 침수됐다. 대전지역도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 집중호우가 쏟아져 대전천 하상도로 전 구간에 대한 차량진입이 통제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김근태 의장 "분명히 人災다"

중부권을 휩쓴 '물폭탄' 수해의 원인을 놓고 인재(人災)적 성격이 짙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인재 성격이 짙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인재지역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에는 재선의 원희룡 의원이 임명됐다.

조사단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교 안양천 둑 부분유실 사태 등 관리부실로 수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뒤 책임규명과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도 17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교 안양천 둑 부분유실 사태와 관련, "둑 바로 밑까지 파헤쳐져 물이 콸콸 흘러넘쳤다"며 "이는 분명히 인재"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김 의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소방방재청 관계자들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을 방문,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당은 또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난관리에 대한 소양부족으로 이번 집중호우 사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위기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소방방재청측은 "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경험이 부족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장들에 대해 국가위기관리 교육을 의무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또… 16년째 '묻지마' 줄파업

###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쏟아진 비난
### 생산성 도요타 절반…연봉은 5천만원
### "채용비리 잊었나" 시민들 자숙 요구

16년째 '줄파업' 기록을 세우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대한 경제계와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특히 일본의 도요타가 4년째 임금을 동결한 반면 '귀족노조'로 불릴 만큼 고임금을 받는 광주공장 노조는 매년 줄기차게 임금 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까지 느끼고 있다.

◇생산성 최하위, 임금은 수준급=현대차가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HPV·Hour Per Vehicle)은 32.2시간으로 닛산(17.2), 도요타(20.6), 혼다(20.6) 등 일본 업체는 물론, 크라이슬러 등 미국업체들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HPV가 길면 그만큼 생산성이 낮다는 얘기다.

기아차는 39.1시간으로 현대차보다 생산성이 더 낮다. 기아차의 1인당 연간 생산대수도 경쟁업체에 크게 뒤진다.

지난 2003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연간 생산대수는 현대차가 32.0대인 것에 비해 기아차는 27.3대에 그쳤다. 반면 도요타와 혼다는 각각 54.4대, 43.5대에 달했다.

1인당 매출액도 ▲기아차 34만4천363달러 ▲현대차 40만6천942달러 ▲혼다 106만1천793달러 ▲도요타 119만1천793달러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통해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6~9%씩 임금을 올렸다.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연봉)은 2000년 3천530만원에서 지난해 5천만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이는 도시근로자 4인 가구주 근로소득 대비 1.9배이며, 근로자 전체 가구주 근로소득 중 상위 10%에 해당한다.

◇파업 손실 엄청나다=지난달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현대차의 직접 피해액이 8천억원을 넘어섰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 87년 노조 설립 이후 20년 동안 19년동안(94년 제외) 파업을 벌이면서 회사에 입힌 손해는 10조원을 돌파했다.

오는 31일까지 하루 20%만 공장을 가동한다 해도 올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1조6천5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공장 가동이 아예 중단되면 하루 손실액만 1천억원이 넘고 총 손실이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의 파업손실은 우리나라 전체 파업손실액의 80%에 해당한다.

지난 2003년 1년 동안 국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천명 기준)는 90일에 달했다. 반면 일본·호주·프랑스·독일 등은 하루 정도에 불과했다.

산업연구원이 2004년 노사분규가 발생한 287개 업체 가운데 제조업체 15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은 1조2천899억원, 수출차질액은 8억2천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현대·기아차의 생산·수출차질액이 전체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8.2%, 82.8%에 달했다. 이쯤되면 현대·기아차의 파업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채용비리 벌써 잊었나=지난해 초 광주공장은 생산직 직원 채용비리로 인해 한바탕 회오리를 겪었다. 이와 관련, 기아차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노사는 채용비리 파문의 후속 대책으로 '기아차 혁신위원회'를 결성했으나, 노조측은 '노동 3권 침해우려' 등을 이유로 혁신위에서 발을 빼는 등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였다.

◇국제경쟁력 무너진다=파업 손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무형의 피해가 훨씬 크다.

해외에서는 제너럴모터스(GM)와 르노-닛산의 3각연대 구축협상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포드와 도요타가 다른 업체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세계 자동차업계의 합종연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M-르노-닛산은 지난 14일 CEO 회동을 통해 90일간 3각연대의 이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일본 도요타도 포드와의 연대를 준비하면서도 경쟁사인 닛산이 GM과 연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GM과 제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 노조는 '묻지마' 파업에만 열중하고 있다. 한편 해외 메이커의 합종연횡에 긴장한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노조문제는 계열사 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글로벌경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수술없이 전립선질환 '한약'으로 근본 치료!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한 비생으로 밤톨만한 크기의 전립선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은 크게 전립선염, 전립선비대, 전립선암이 있다. 전립선질환은 치료가 잘 되지 않아 환자들은 날로 무기력해지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걸려 삶이 피폐해진 경도로 발전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때 그때의 증상만을 잡는 '표치'를 하였기 때문이다. 한약으로 근본치료를 하게 되면 전립선질환은 말끔히 치료될 수 있다.

**— 30년 고통 만성전립선염 2개월 반만에 정상으로**

전립선염은 30-50대 남성의 30%이상이 경험 증도로 흔한 질환이다. 유난히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줄기가 가늘어지며 소변에 농이 섞여 나오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따르면 일단 전립선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일중한의원 손기정 원장(www.iljung.co.kr)은 "그동안 전립선염에 대한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았으나 7년간의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친 끝에 개발한 한방탕약 '일중탕'의 탁월한 치료효과는 만성전립선염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순수 한방재료로 구성된 '일중탕'은 전립선의 염증제거 및 면역기능강화, 항상제 장기사용으로 인한 내성까지 극복하는 3가지 치료를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고 공력 증진효과를 얻으로 얻을 수도 있다"고 했다.

종로구 무악동의 진 모씨(64세), 전에 치료하던 병원장의 '젊은 쓰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치료에 대한 불신감으로 한방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2개월반만에 완전히 치료되어 전에 치료하던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병원 원장도 한약으로 전립선염이 치료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완치되어 현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 소변을 자주 보거나 뇌도 시원치 않은 전립선비대**

전립선염이 비교적 젊은 남성들의 질환이라면 전립선비대는 대표적인 남성노인성 질환이다.

방광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요도를 눌러 소변 보는 횟수가 증가하고 배뇨시작이 늦어지며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본 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게 된다. 전립선비대는 남성호르몬 등의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치료 방법으로 약물요법과 수술적 방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만성전립선염 환자 2000여명 치료하여 탁월한 효과 검증**
**전립선비대로 인한 배뇨장애, 치료 후 소변 '시원'**
**국립대의대에 실험 의뢰한 결과 전립선암에 치료효과 입증**

심한 비대증으로 전립선의 크기가 많이 커진 경우는 그 크기를 다시 줄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쉽지 않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가 가능하며 가장 큰 불편함인 배뇨장애의 증상은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

손 원장은 "전립선비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장(腎臟)과 방광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신장과 방광의 기운을 보강해 주고 소변이 잘 나오도록 이뇨(利尿)작용을 강화하는 한약을 복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용으로 직접 주입하는 '일중에'를 함께 사용하면 훨씬 흐르던 소변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 한약요법 'PSA' 수치도 낮춰**

전립선질환의 검사에서 꼭 놓여져야 할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혈액 중에 전립선 특이 항원의 증가 여부를 알아보는 혈중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검사 항목이다. 전립선 암이 있을 때 혈중 PSA수치가 증가하는데 전립선암의 진단이나 치료 후 추적관찰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일중한의원에서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전립선암 환자와 전립선암 의심환자에게 한약 처방제를 복용하게 한 결과, 혈중 PSA수치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전립선염 치료사례를 통해서 완치할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전립선질환 전문 일중한의원 손기정 원장이 게재하였다.

실례로 PSA수치가 1.96.3이나 되었던 이 모씨는 항암치료의 일중한의원의 치료를 받은 후 PSA수치가 6.4로 감소되었고 이후 일중한의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PSA수치는 0.7로 떨어졌다. 전립선암 의심 환자 한 모씨도 약 2달간 일중한의원의 치료만으로 7.8이었던 PSA수치가 3.0으로 떨어졌다.

한재 손 원장은 한약 치료를 통한 PSA수치 감소 사례에 대한 통계는 발표를 준비중이며 한약재의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대의대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전립선암에 상당한 치료효과가 입증되어 곧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손 원장은 "PSA수치의 감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곧 한약재를 통해 전립선암 치료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상담문의 전립선질환 전문
일중한의원 02-585-3600